



은행 (Positive)

5월 연체율: 5월은 원래 높아져요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국내은행의 5월 말 연체율은 0.67%(+3bp YoY)로 상승했습니다. 연체율의 계절성을 고려해 YoY로 비교하면 상승폭이 낮은 한 자릿수까지 축소 및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연체의 절댓값이 2015년 하반기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은 우려 요인입니다. 연중 연체율 개선이라는 전망이 실현되려면, 중소기업 연체의 안정화가 핵심 변수입니다.

국내은행 5월 말 연체율 0.67%(+3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2026년 5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67%(+3bp YoY)로 상승 (그림 1~6)
- 차주별 연체율은 법인 중소기업이 1.11%(+8bp YoY), 자영업자가 0.84%(+2bp YoY)로 상승.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의 상승폭은 3개월째 10bp 미만으로 축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한 자릿수를 지속.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은 0.27%(+12bp YoY)로 상승
- 가계 연체율은 0.45%(-2bp YoY)로 3개월째 YoY 하락을 지속. 신용 등 일반대출은 0.90%로 4bp YoY 하락했고, 주택대출은 0.31%(-1bp YoY)로 4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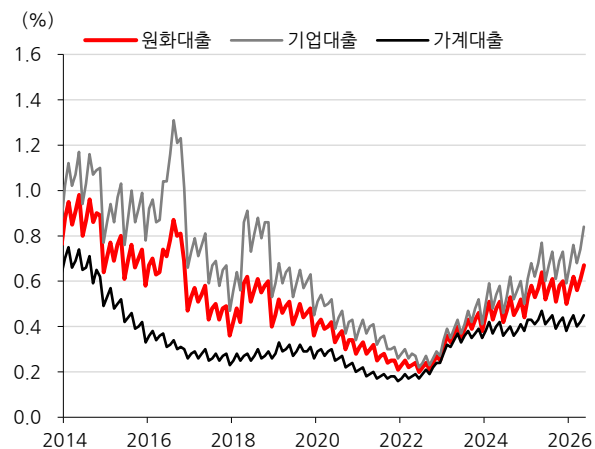
신규 연체는 늘고 연체채권 정리는 줄어들고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5월 말 16.8조원(+9% YoY)으로 추산 (그림7)
- 5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는 3.3조원으로 14% MoM 증가 (그림9). 반면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규모는 1.5조원(-12% YoY)으로, 연체채권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리는 감소하면서 정리율은 최근 8개월의 5월 중 최저치를 나타냄 (그림10)
- 기업 (추정): 5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14% YoY로 추산. 법인 중소기업 연체잔액의 YoY 증가율은 2023년부터 매월 20~72%를 나타냈으나, 2026년 들어 10%대로 완화. 자영업자 연체 증가율은 3%로 7개월간 한 자릿수를 지속. 한편 건당 영향이 크고 비중이 작은 대기업 연체잔액은 4월 7,000억원에서 5월 9,000억원으로 증가 (그림12)
- 가계 (추정): 5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2% YoY로 추산. 신용 연체잔액이 3개월 연속 3% YoY 감소하고, 주택담보 연체잔액이 47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1%)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12)

계절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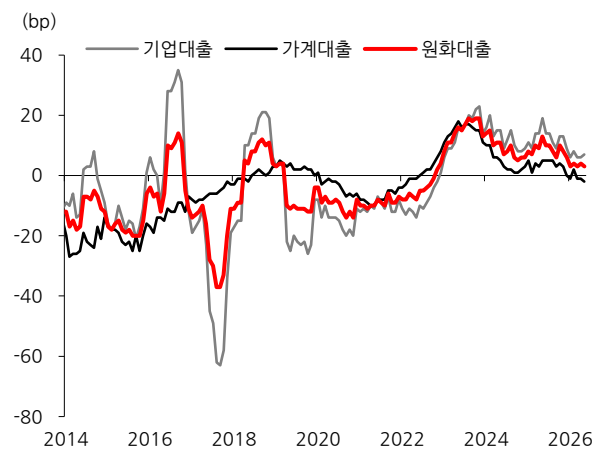
- 은행업종의 5월 연체율은 모든 차주가 전월 대비 상승을 나타냄. 다만 연체율은 매분기/반기/연말의 대규모 매매각 이후 다음 분기 말까지 월별 상승하는 흐름이 반복됨. 이러한 계절성 때문에 연체지표는 YoY 흐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유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5월 총 연체율의 YoY 상승폭은 3bp로 최근 흐름과 유사함 (vs. 2025년 월 평균 +9bp, 2026년 1~4월 +3~4bp). 신규 연체의 증가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연체 정리율이 평년 대비 낮았던 점도 고려해야 함
- 한편 경기 상황을 반영하며 사이클을 형성하는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상승 속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분리 산출이 시작된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자영업자와 합산한 중소기업 전체 연체율로는 2015년 하반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연체율의 상승폭은 낮은 한 자릿수까지 내려온 상황. 2026년 중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개선(YoY)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당사의 기존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연체의 안정화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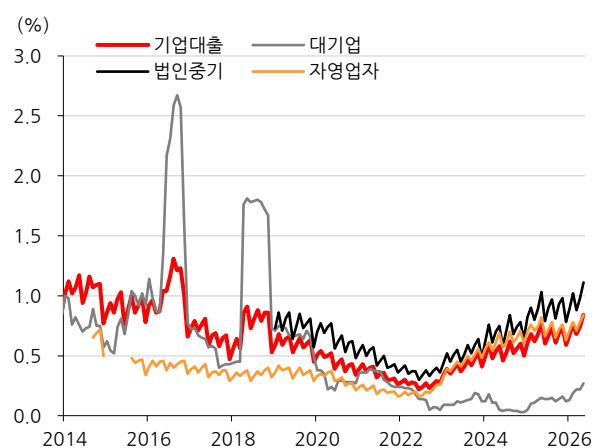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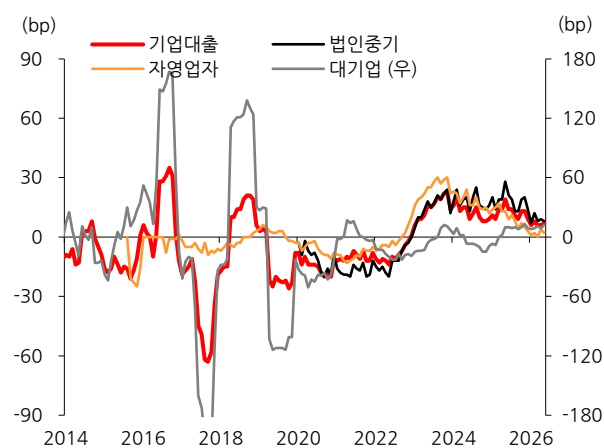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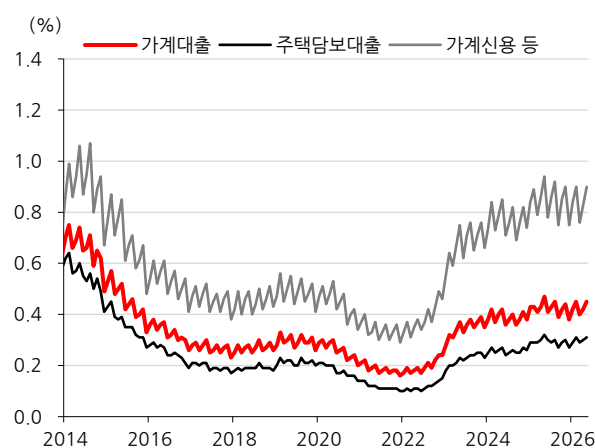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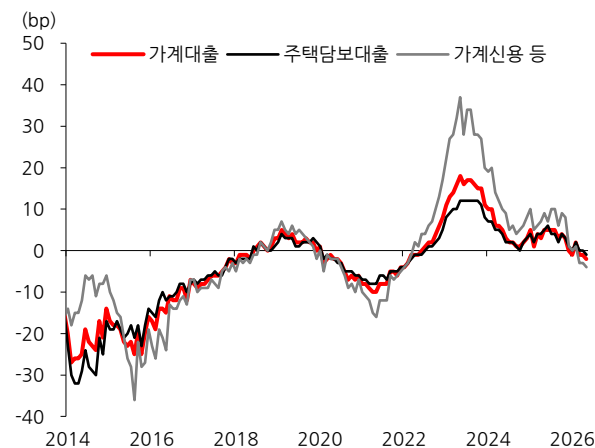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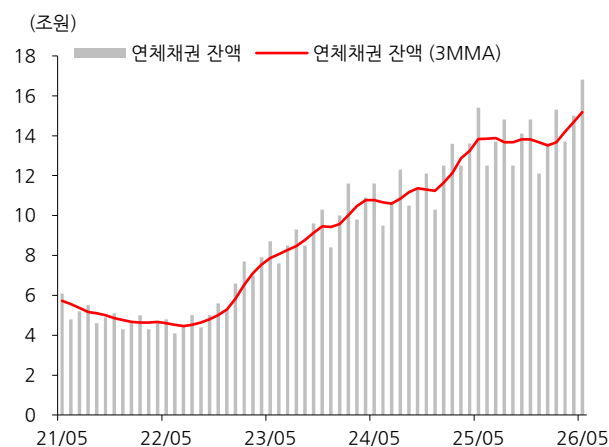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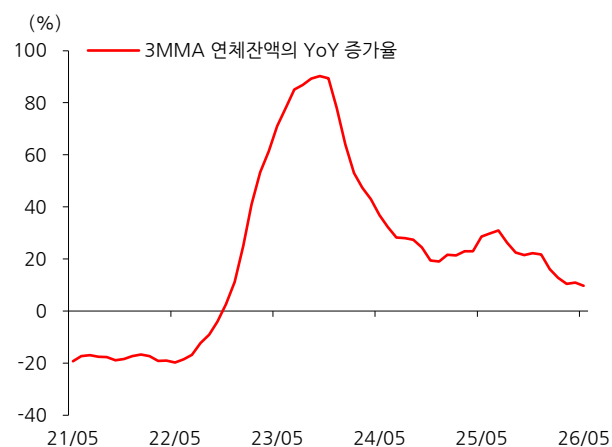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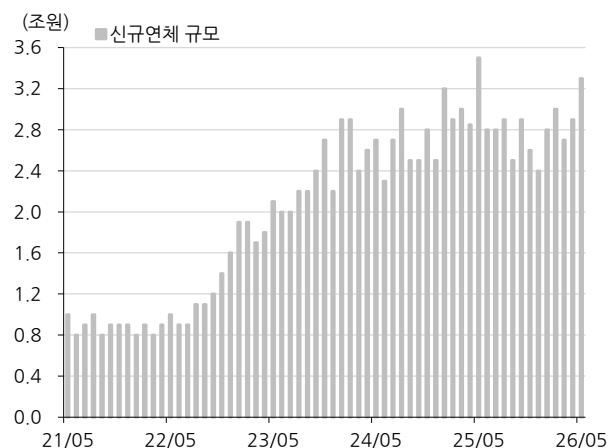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3개월 이동평균 연체채권 잔액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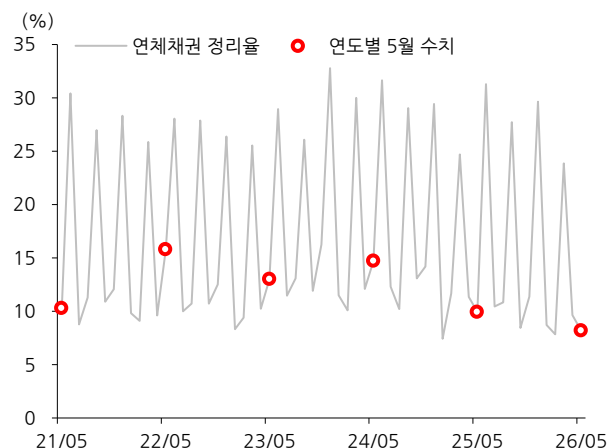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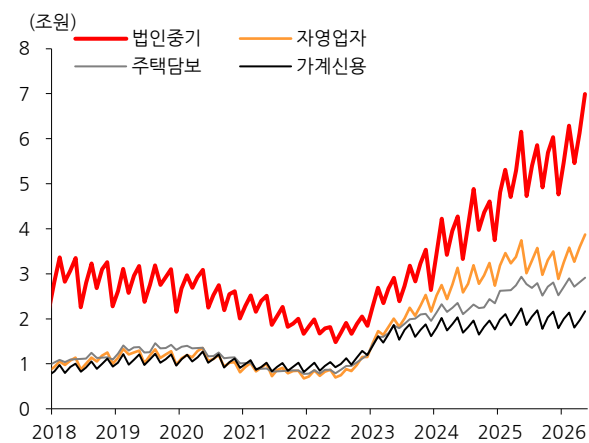
[그림10] 월 중 연체채권 정리율



주: 당월 정리 규모/(전월 연체잔액+당월 신규연체)의 비율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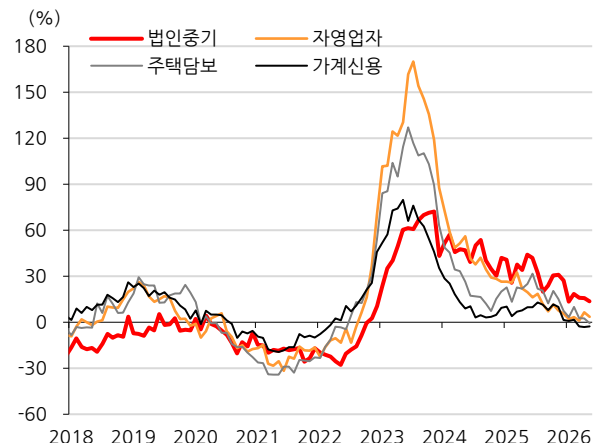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 년 7 월 22 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 년 6 월 30 일)

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6.3%	3.7%	0.0%	100.0%